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소셜 살롱, Co-Book을 만든 만든이101 팀의 팀장 황수민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다들 책 읽는 것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매년 독서량은 줄지만 독서모임 참여자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네 바로 사람들과의 지적인 교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만든이101은 이러한 부분에 착안하여 독서를 안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도록, 좋아하는 사람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책 읽는 사람들의 소셜 살롱’ 코북을 기획하였습니다.

저희 코북은 두 가지 가치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책 읽는 사람들 간의 '소통'입니다. 혹시 책을 읽은 후 느낀 감동 혹은 재미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적 없었나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코북은 본인의 독서 활동을 편리하게 기록하고, 이를 SNS 피드에 공유하면서 많은 사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직접적인 의미에서의 '연결'입니다. 저희 코북은 온라인 책모임을 매칭하여 사용자들이 같은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코북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설계한 ERD 입니다.

네 저희의 기능은 크게 피드, Club, 서재로 3가지 입니다.

그 중 첫 번째는 피드 기능입니다.

피드에 올라오는 게시물은 팔로우한 유저가 작성한 책 리뷰 게시물입니다. 아무래도 책 리뷰는 긴 텍스트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요약하는 한줄 평을 필수 작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노출시켜 피드 페이지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향상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아요, 북마크, 공유하기 등을 통해 사람들과 다양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 기능은 책 모임 매칭 서비스, 클럽입니다.

코북은 제공하는 책 모임 매칭 서비스를 사용자가 쉽게 찾고,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크게 세 가지 개념을 규정해두었습니다.

먼저 '클럽'은 정기적으로 책모임을 갖는 하나의 그룹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독서모임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딩'은 이러한 클럽 안에서 진행되는 한 번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리딩에는 클럽 맴버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밋업'은 리딩과 비슷한 모임을 의미하지만 클럽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일회성 책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번개 모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코북이 제공하는 책 모임 서비스는 단순히 매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책모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까지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요 기능은 독서 활동 관리 서비스인 프로필입니다.

프로필에서는 내가 읽은 책,

참여했던 모임,

북마크한 게시물을 한 눈에 모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팔로우를 통해 다른 유저들과 적극적인 소통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한 기술 스택입니다.

그리고 아직 중간 발표인 만큼 앞으로의 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시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마음대로 넣은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숫자 보이시나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무 뻔한 감동 코드이지만

맞습니다. 저희 팀이 약 2주간 찍은 커밋의 개수와 이슈 개수입니다.

조금은 뻔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낸 저희 팀원들의 노력을 비춰주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소셜 살롱, 코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